2026년 3월 1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전쟁 출구 전략과 증시 진입 전략

한국 증시는 1) 미-이란 전쟁 격화 여부 및 유가 향방, 2) 미국 사모시장 관련 뉴스 플로우, 3) 3월 FOMC 이후 연준의 예상 금리 경로 변화, 4) 엔비디아 GTC, 5) 마이크론 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150~5,700pt).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3주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에 따른 원유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 주말 중에도 트럼프는 하르그섬 추가 공격을 시사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매시간마다 중동 정세 관련 뉴스플로우가 바뀌고 있는 실정. 이는 이번 주 초반부터 "유가 변동성 확대 -> 증시 변동성 확대" 현상이 출현할 가능성을 내포. 그렇지만, 미국도 전쟁 장기화 시 정치적인 부담, 인플레이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란 역시 군사 전력 및 인명 피해 누적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전쟁 당사국들 입장에서 사태 수습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기에, 주중 이번 전쟁의 출구전략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구체화되는지가 증시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3월 1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속 국제유가 급등하며 급락세로 출발. 이후 중동 전쟁 뉴스플로우, 국제유가 등락과 연동되며 코스피는 변동성 장세 연출. 반면, 코스닥은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등 수급 유입 기대감에 하방 압력 제한 (KOSPI -1.75%, KOSDAQ -0.15%)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속 국제유가 레벨 110달러선 돌파, 미국 2월 비농업 고용 쇼크 등 대외 악재 등으로 월간 2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되며 극도의 공포 심리 불거지며 외국인, 기관 대규모 동반 매도 물량 출회된 결과 양 지수는 급락세로 출발. 다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언급, 호르무즈 해협 장악 검토 등의 발언에 힘입어 국제유가 하락하며 위험회피 심리 회복되며 국내 증시도 재차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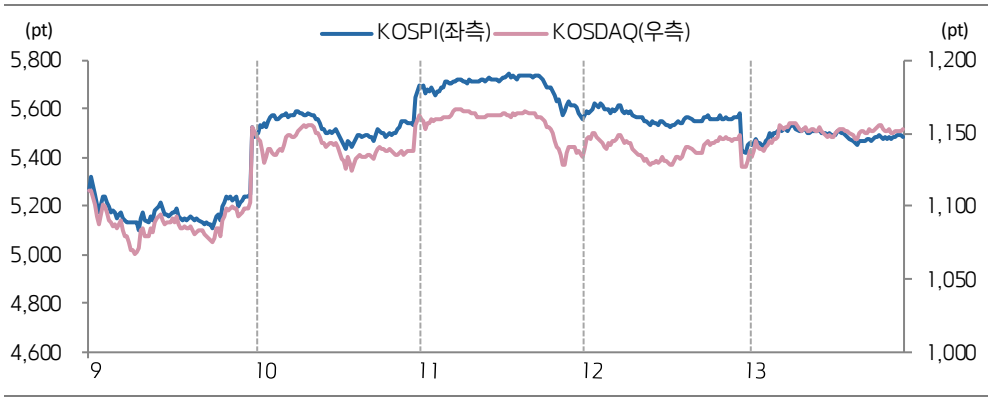
중동발 전쟁 리스크, 미국 사모 대출 시장 부실화 우려 등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코스피는 극도의 변동성 장세 연출. 원달러 환율도 1,500원선 근접하며 원화 약세 압력 가중되는 점도 외국인 매도 유인을 자극.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하방이 제한된 흐름. 특히,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등 수급 유입 기대감 지속되며 코스닥 내 중소형주 강세 흐름 연출. 그 외에 광통신(빅테크를 필두로 한 AI 인프라 투자), 신재생에너지(에너지안보, 유가 상승 속 대안 에너지로서의 중요성 부각), 원전(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원전 수주 기대감) 등의 업종이 강세

한편,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삼성전자(16.4조 원), SK(5.2조 원) 등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 금주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 본격화를 앞두고 대기업을 필두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발표 이어질 전망

업종별로 건설(+11.07%), 비금속(+2.620001%), 기계/장비(+2.62%), 부동산(+2.19%), 오락/문화(+1.39%)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금속(-5.88%), 화학(-4.71%), 운송/창고(-3.6%), 제약(-2.52%), 전기/전자(-2.32%)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6조 2,348억원)은 기계/장비(+1,616억원), 건설(+1,071억원), 운송/창고(+393억원), 의료/정밀기기(+148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8,114억원)은 기계/장비(+2,790억원), 운송장비/부품(+2,167억원), 증권(+1,557억원), 금융(+1,417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3 월 16 일	월	중국	**산업생산 (YTD YoY)**	2 월	5.0%	5.9%
			소매판매 (YTD YoY)	2 월	2.1%	3.7%
			고정자산투자 (YTD YoY)	2 월	-4.2%	-3.8%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3 월	3.9	7.1
			NAHB 주택시장지수	3 월	37	36
			산업생산 (MoM)	2 월	0.1%	0.7%
		행사	**엔비디아 GTC(~19 일)**			
3 월 17 일	화	EU	ZEW 서베이 예상	3 월	-	39.4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4.10%	3.85%
3 월 18 일	수	한국	실업률	2 월	-	3.0%
		EU	CPI (YoY, 최종치)	2 월	1.9%	1.7%(1.9%)
		미국	**PPI (MoM)**	2 월	0.3%	0.5%
			근원 PPI (MoM)	2 월	0.3%	0.8%
			PPI (YoY)	2 월	-	2.9%
			근원 PPI (YoY)	2 월	-	3.6%
3 월 19 일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3 월	-	16.3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3 월	2.15%	2.15%
			BOJ 통화정책회의	3 월	0.75%	0.75%
			FOMC 금리결정 (오전 3 시)	3 월	3.75%	3.75%
		실적	**마이크론, 알리바바그룹홀딩, 핀둬둬**			
3 월 20 일	금	EU	무역수지	1 월	-	12.6b
		파생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행사	**FTSE 분기 지수 리밸런싱**			
		휴장	**일본(춘분)**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이란 전쟁 추가 격화 여부 및 유가 향방, 2) 미국 사모 시장 관련 뉴스 플로우, 3) 3월 FOMC 이후 연준의 예상 금리 경로 변화, 4) 엔비디아 GTC, 5) 마이크론 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150~5,650pt).

13일(금) 미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속 4분기 GDP 쇼크(QoQ 0.7% vs 컨센 1.4%) vs 1월 구인건수 호조(694만건 vs 컨센 676만건) 등 엇갈린 지표 여파로 하락 마감(다우 -0.3%, S&P500 -0.6%, 나스닥 -0.9%).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3주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에 따른 원유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 그 가운데, 미국 장 마감 후 트럼프가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이 집결되어 있는 하르그섬을 폭격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군함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

물론 트럼프가 하르그섬의 석유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해당 섬 공격 이후 이란 측에서 미국, 이스라엘만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음. 하지만 하르그섬에 폭격이 가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운항사와 보험사들이 입항을 거부할 유인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이 원유 시장 향방을 주시하는 증시 참여자들의 고민거리(하르그섬의 석유시설은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 차지).

주말 중에도 트럼프는 하르그섬 추가 공격을 시사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매시간마다 중동 정세 관련 뉴스플로우가 바뀌고 있는 실정. 이는 이번 주 초반부터 "유가 변동성 확대 -> 증시 변동성 확대" 현상이 출현할 가능성을 내포.

그렇지만, 미국도 전쟁 장기화 시 정치적인 부담, 인플레이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란 역시 군사 전력 및 인명 피해 누적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 같은 한계점은 전쟁 당사국들 입장에서 사태 수습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기에, 주중 이번 전쟁의 출구전략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구체화되는 지가 증시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 전망.

비슷한 맥락에서 3월 FOMC의 증시 영향력은 평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 통상 매 분기마다 치러지는 FOMC는 경제 전망 및 점도표 업데이트가 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동 사태가 증시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여부, 점도표 및 경제전망 변화보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

일단 최근 유가 급등을 놓고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22년 인플레이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평가해버리는 시나리오도 대비할 필요(22년 당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봤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급격한 긴축 정책을 초래).

후자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시 시장금리 상방 압력이 출현하면서 증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번 3월 FOMC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메인 이벤트라고 판단. 최근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잇따른 환매 중단으로 인한 사모대출시장 노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FOMC 이

벤트에 반영할 부분.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사모대출 불안 이슈에 연준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이처럼 지정학, 매크로 등 외부 요인의 영향력이 높은 국면이나, 증시 내부적으로도 엔비디아 GTC 행사, 마이크론 실적도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임.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는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의 구체적인 양산 일정(올해 3분기 출시가 컨센서스)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해당 GPU의 양산 시기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4 매출 인식의 가시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주가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또한 최근 AI 관련 사모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이번 GTC를 통해 AI 인프라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세를 재확인할 수 있는지도 관건.

3월 FOMC 결과 발표 시점과 맞물린 마이크론 실적은 GTC 행사보다 사실상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예정(컨센서스 매출액 192억달러, EPS 8.7달러). 연초 이후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호실적은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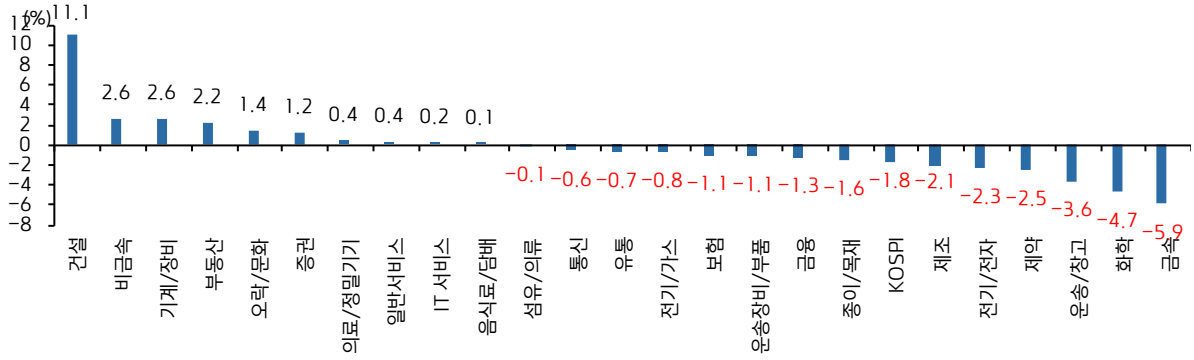
다만, 최근 이들 주가가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신규 재료가 필요한 시점임. 이는 이번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의 서프라이즈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 더 나아가, 컨퍼런스콜에서 확인될 수 있는 1) 공급 병목 현상의 지속기간, 2) 지정학적 리스크와 AI 소프트웨어 산업 불안이 실제 메모리 업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반도체 업종 전반의 단기 투자 심리를 좌우할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5,487.24	-1.7	-1.8	-0.4	30.2
대형주	5,823.96	-1.9	-2.0	0.2	33.0
중형주	4,257.13	-0.8	0.0	-4.6	14.4
소형주	2,741.18	-0.2	0.6	-2.2	8.9
코스피 200	812.93	-1.8	-1.9	-0.2	34.2
코스닥	1,152.96	0.4	-0.2	4.2	24.6
대형주	2,896.80	0.3	-3.7	5.2	28.7
중형주	1,138.05	0.3	2.9	3.5	26.5
소형주	2,973.39	0.7	4.2	2.8	15.5
코스닥 150	2,001.81	0.5	-2.8	5.3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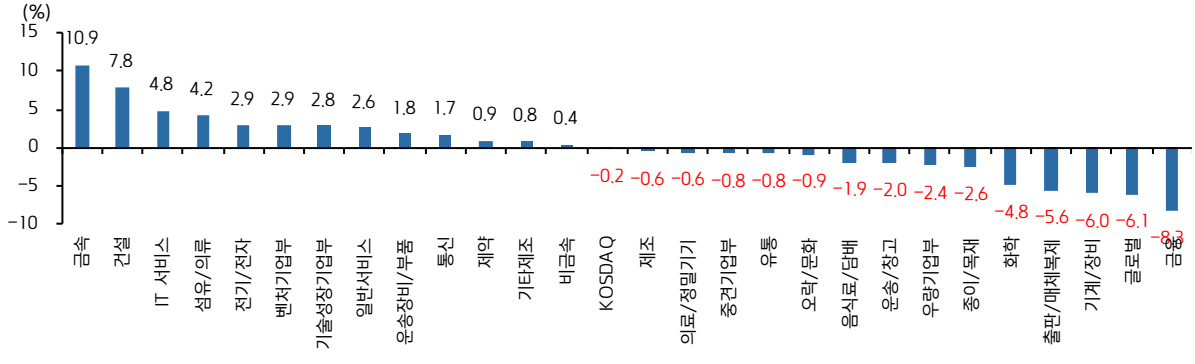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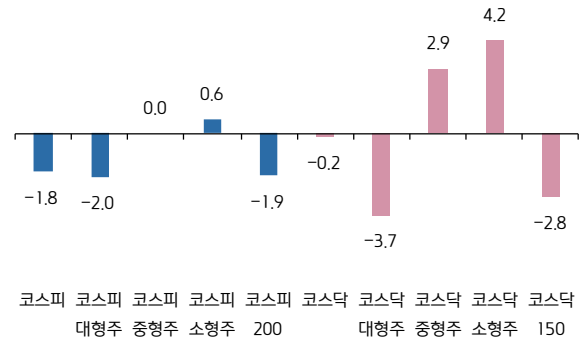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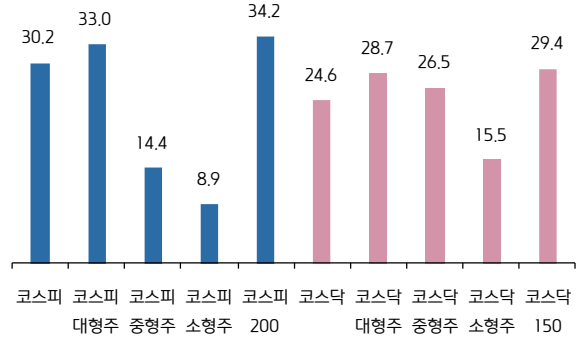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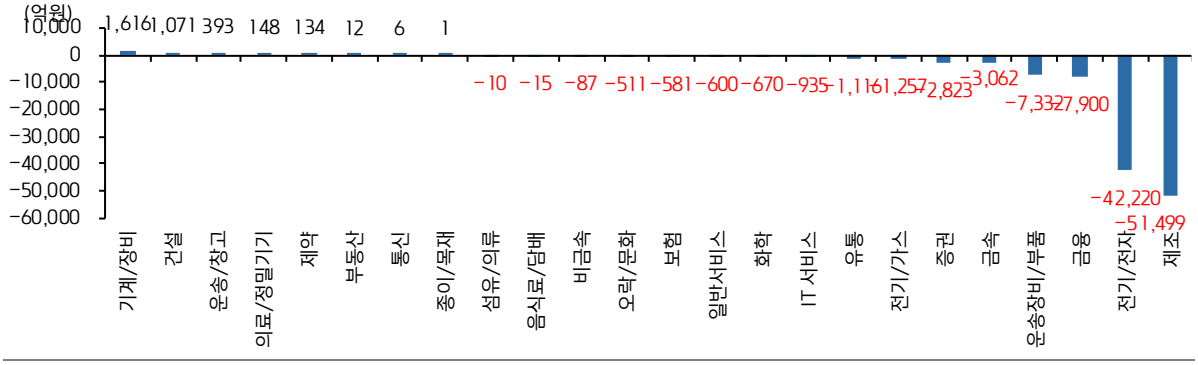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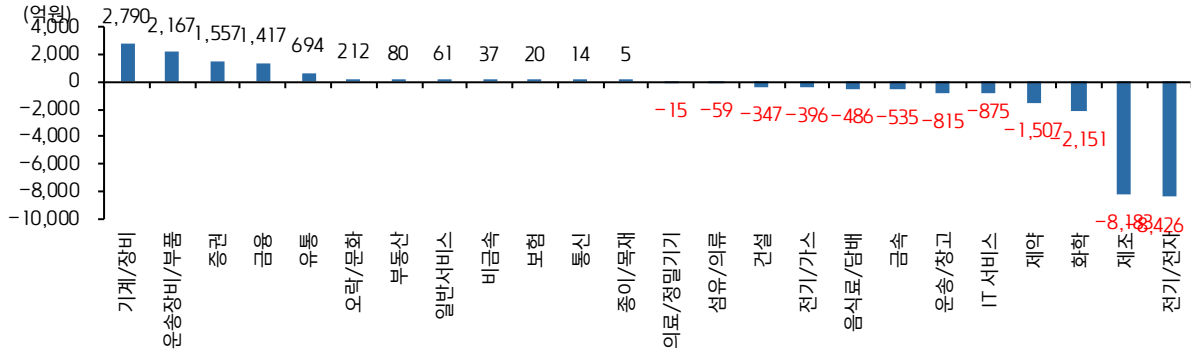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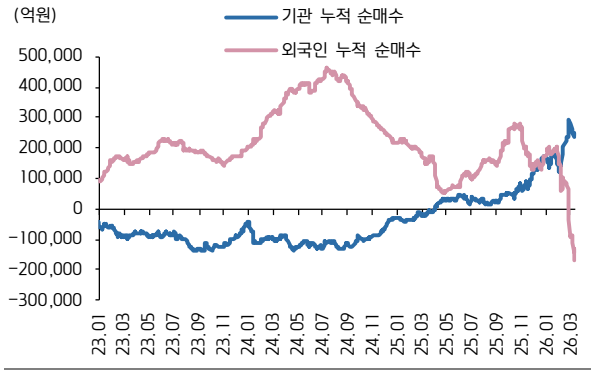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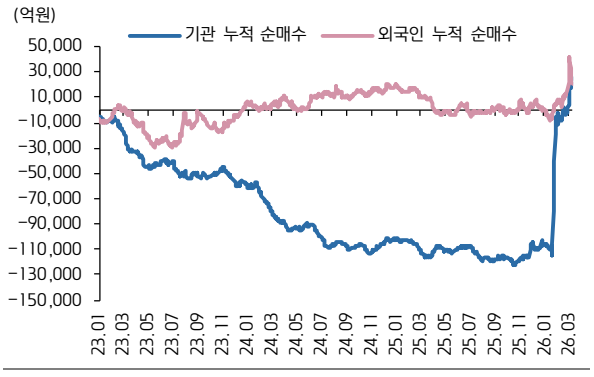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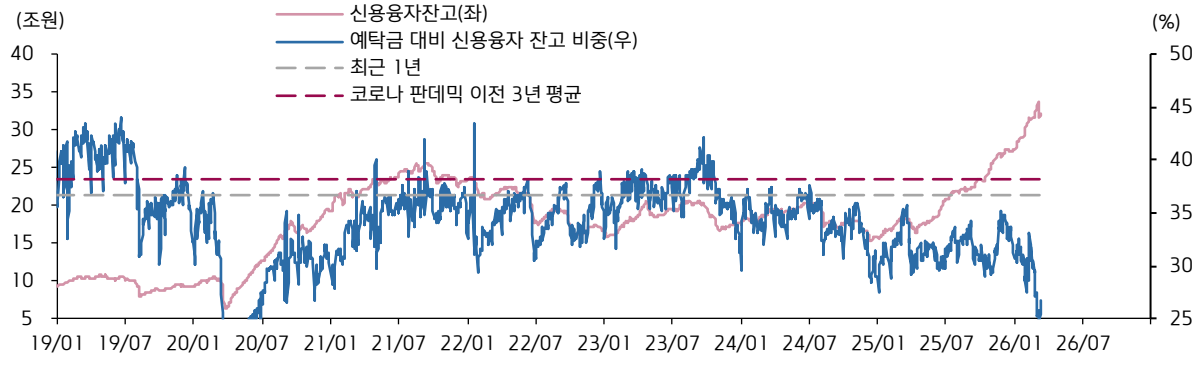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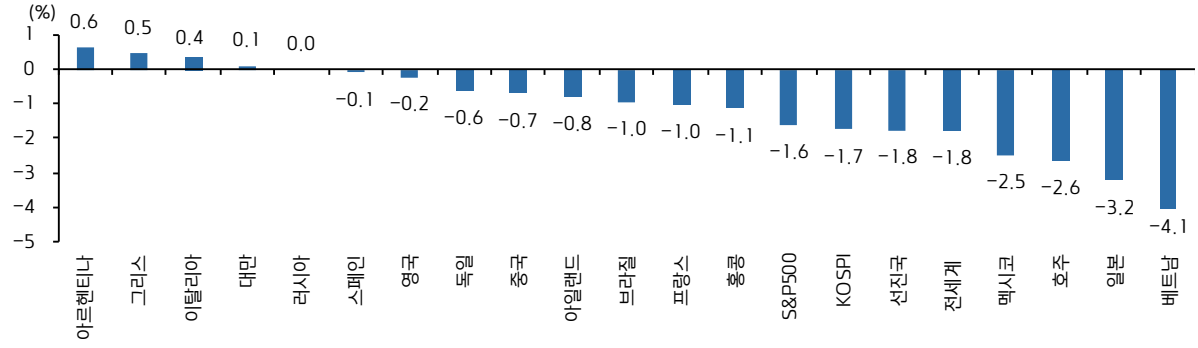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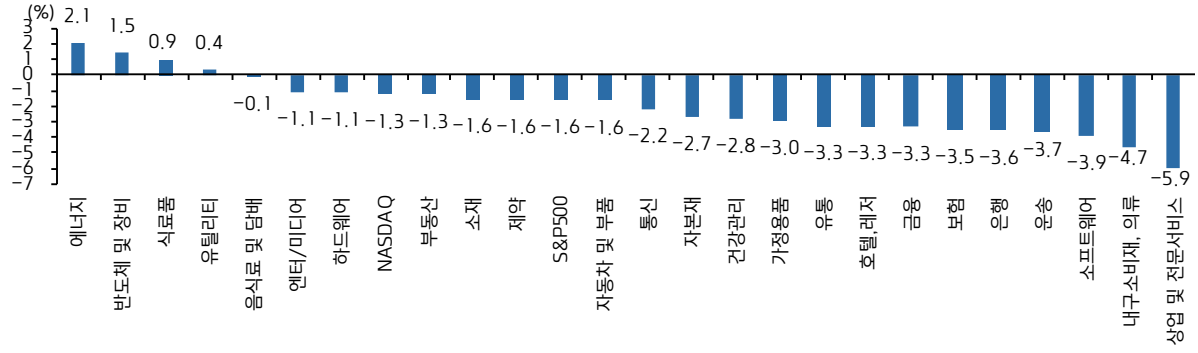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